

서구, 집중안전점검 평가 ‘국무총리표창’ 수상



광주 서구청 전경 사진

/광주 서구청 제공

민관 합동 61일간 87개 시설 안전점검

구청장 직속 안전어사대 운영·후속조치율 92% 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집중안전점검’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226개 시군구를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서구는 올해 4월20일부터 6월19일까지 61일간 공공기관과 민간 전문가, 시민점검단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건설현장과 노후·위험 기반시설 등 87개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피고 위험요인을 확인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특히 집중안전점검 기간 구청장

직속 안전어사대를 운영해 공사장·교량·숙박시설 등 중점관리 현장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주요 위험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후속조치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구는 점검 후속조치율 92%를 기록했으며, 간부공무원 중심의 24시간 소통체계를 통해 공사장 안전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주민신청제 운영과 절연저항 측정기 등 전문장비 활용, 민간 참여를 통한 열린 안전행정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행정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책임 있는 현장 대응과 구민 참여로 안전관리 체계를

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내 곁에 안전서구’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를 계기로 서구는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위험요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확대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위험요소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후속조치 이행 여부도 꾸준히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광산구, ‘살던집 프로젝트’ 국가 시범지역 지정 제안

주거·의료·돌봄 통합 모델 제도화 모색

중간집 입주비 80% 절감 성과 소개

광산구 ‘살던집 프로젝트’를 지속 가능한 제도로 이어가기 위해 광산구를 ‘생활권 주거 돌봄 국가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전남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15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사)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터와 공동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거·돌봄 정책의 대전환’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살던집 프로젝트’를 전국 어디서나 누리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생활 공간에 회복 지원 주택인

‘중간집’과 돌봄 전담 인력이 상주하는 ‘케어홈센터’를 구축해 주거와 의료,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의 제도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김용익 (재)돌봄과미래 이사장은 기존 강연에서 집을 돌봄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호 (사)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터 상임대표는 광산구를 생활권 주거 돌봄 국가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 ‘살던집 프로젝트’를 제도로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지

방자치단체의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관리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간집 공급 확대와 병원 퇴원부터 재활, 자택 복귀까지 연계하는 협력체계 구축, 공공임대주택의 유휴 공간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도 과제로 제시됐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살던집 프로젝트’를 통해 환자가 다시 주민으로 일상을 되찾은 사례와 중간집 입주 주민의 월평균 입주비가 80% 가까이 줄어든 성과를 소개했다.

박 청장은 “‘살던집’의 핵심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아닌 지역의 사람과 공간,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이라며 광산의 경험이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과 실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13일 ‘중간집-선운’을 열고 ‘살던집 프로젝트’를 선운권역으로 확대했다. 개소식

에 참석한 보건복지부도 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광산구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살던집 프로젝트’의 제도화와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주거와 돌봄서비스가 분리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주민이 익숙한 생활권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과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주거와 의료, 돌봄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병원에서 퇴원한 주민이 중간집에서 회복한 뒤 다시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지역 돌봄기관 간 협력체계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김정관 기자



광산구 지역사회 주거 돌봄 정책 대전환 포럼 사진

/광주 광산구청 제공



무안군

문화관광 콘텐츠도시

무안으로 떠나는 여행..

대자연과의 축제 속으로 떠나는 여행!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무안으로 여행을 즐겨요~~

사계절 관광명소



나들이하기 좋은 곳...
무안으로 떠나요~~



깊은비단 갯벌 인류와 공존하다
전국 최대규모 무안생태갯벌센터

박지모양 등대 보러오세요~
일출, 일몰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도리포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호담 항공우주전시관

한국의 다도를 중흥시킨 다성(茶聖)
초의선사 탄생유적지

하늘과 땅, 바다 모두 볼게 물들다
낙조가 아름다운 톱머리 해수욕장

바다와 바람에 온 몸을 맡긴다
윈드서핑의 최적지 홀통유원지

백련, 진흙 속에서 순백의 꽃을 피우다
동양 최대 백련 자생지 회산백련지



무안군